

#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와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

## College student's beliefs about support for old parents according to familism and their child-rearing experience

김영주\* · 공인숙 · 이주리 · 민하영 · 이점숙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대구카톨릭대학교 아동학과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Kim, Young Joo\* · Kong In Suk · Lee Ju Lie · Min Ha Young · Lee Jum Sook  
Ulsan University · Soonchun University · Chungang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Seoul University.

### Abstract

A cultural model can change as times go by within one ethnic group. For example, a strong familism has existed for a long time throughout a history of Korea, but it is, just like most social values, now in the midst of a rapid change. Accordingly, Koreans' belief about family values and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ir old parents are changing, too. Especially, supporting parents was one of the highly-estimated traditional values, but it seems to no longer exist. However, one's own rearing experience might be a moderator of association of his or her familism with the ebbing value.

Therefore, we aim to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rel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familism, their own rearing experiences, and their beliefs about supporting old parents.

A total of 155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by SPSS. T-test and ANOVA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findings are that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upporting parent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familism and rearing experiences: Those with a strong familism and warm rearing experience have solid beliefs in supporting parents.

Key Words : familism, child-rearing experience, beliefs about support for old parents.

## I. 문제의 제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은 핵가족화와 개인주의화로 인해 가치의식이나 생활양식에 있어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부모들은 전통적 생활양식인 집합주의적 가족주의에 익숙한 반면 자녀들은 개인중심주의 가치관을 선호하여 세대간에 가치관 차이로 인한 노후 부양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김송애 · 조병은, 1991).

부모 부양은 전통사회에서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가치였던 '효'에 바탕을 둔 가족부양체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산업화에 기인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여러 가

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송애 외 1인, 1991; 성미애 · 옥선화, 1997; 송현애 · 이정덕, 1995; 최정혜, 1994). 효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의 원리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가족주의 가치가 우리의 전통적 미덕으로 강조되면서 사회구조적 변화의 서구지향성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공식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오늘날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는 실제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옥선화, 1989). 우리 사회는 규범상으로는 효를 강조하면서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 두고 있지만, 다른 어떤 가치보다 독립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에 입각한 효를 강조하면서 부모 부양을 가족의

\* Corresponding author; Kim, Young Joo.  
Tel: 052)259-2741, Fax: 052)259- 2888  
E-mail: grace609@ulsan.ac.kr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노인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는 노인부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기는 하나 이외에도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새로운 변인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부양기대는 노후에 신체적, 정서적 또는 경제적 등 제 측면에서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에게 바라는 정도(전길양·김태현, 1993)를 말한다. 이러한 피부양기대는 부모-자녀 간에 존재하며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부양기대를 지속시키는 동기는 가족주의 가치와 같은 도덕적, 사회적 신념일 수도 있고,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공평성에 대한 기대요인(부모가 자녀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자녀는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애착에 근거한 기대요인(부모-자녀 간에 형성한 애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모가 취약한 상황에 놓여질 때 부양해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족주의 가치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애정적인 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족주의 가치와 아동기 양육 경험을 선정하였다. 먼저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적 원리로서,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기본가치로서 우리 삶에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이념이다(최정혜, 1999). 가족주의 가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에 따라 부계(父系) 가족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3세대 직계 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가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를 강조하며, 이 효의 범주 안에는 부모(여성에게는 시부모)에 대한 부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화되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가족주의 가치관에 근거한 부모 부양 의식이나 피부양기대는 노인 부양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규범이 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오늘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 조건 속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에 근거한 규범적 효보다 부모자녀간의 생애적인 친밀감과 애착에 기인한 자발적 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때다. 며느리와 딸의 노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이신숙·서병숙, 1994)에서 노모와 친밀하고 애착관계가 형성된 딸은 부양스트레스도 적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모에게 양육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형성한 친밀감과 애착은 부양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발적인 효의식을 갖게 하여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아동기 양육 경험은 자발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한 요인이다. 어릴 때 아동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적 작업모형을 형성하여, 성

장한 후의 이성발달(Bowlby, 1973)이나 부모자녀관계(Benoit & Parker, 1994; Sroufe, Jacobvitz, Mangelsdorf, DeAngelo, & Ward, 1985)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형성된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애착요인에 근거하여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장차 양성 평등적이고 자발적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기존의 장남 위주의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모든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을 갖도록 하게 할 것이다. 또한 노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서적 부양(김태현, 1981, Seelbach, 1977)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아동기 양육 경험과 관련시켜 분석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자발적 효의 바탕이 되는 아동기 양육 경험과 규범적 효의 근간이 되는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80년대 초반에 태어나 풍요와 현대화를 누린 오늘날의 대학생 집단은 장차 자녀를 생산하고 노인을 부양할 집단으로, 이들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연구는 몇 편(김송애 외 1인, 1991; 최정혜, 1997; 한경순, 1999; 허훈, 1988) 있어왔으나 가족주의 가치관과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아동기 양육 경험 및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는 가족주의 가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는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기 양육경험 및 가족주의 가치 수준

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순천지역의 대학생 총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연구대상 대부분의 출생년도가 1980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에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자랐고, 보다 민주화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기반 한 부모 부양의식, 피부양기대 등이 기성세대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곧 결혼하여 자녀를 가질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는 앞으로의 출생율과 노인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155명중 남자는 58명(37%), 여자는 97명(63%)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가 14명(12.2%), 20세가 92명(59.3%), 21세가 36명(25.1%), 22세 이상이 13명(8.3%)이었다.

###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먼저 순천지역의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순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10일에 걸쳐 수행되었다.

### 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주의 가치 척도, 아동기 양육경험 척도, 부모 부양의식 척도, 피부양기대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 1) 가족주의 가치 척도

본 연구의 가족주의 가치 측정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옥선화(1989), 임의섭(1987), 김송애 외 1인(1991)의 척도를 참조로 하여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5명의 논의를 거쳐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대단히 반대'에 1점, '약간 반

대'에 2점, '찬반 미정'에 3점, '약간 찬성'에 4점, '대단히 찬성'에 5점을 주어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응답가능 범위는 21점에서 10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결혼 후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두어야 한다(문항 3), 자식을 낳고 키우는 문제는 나와 내 가족만의 일이 아니고 가문(집안) 전체의 일이다(문항 6), 분가해서 살 경우 시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문항 10)와 같은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계중심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아동기 양육 경험 척도

Baumrind(1973)의 부모양육 척도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공인숙(1987), 김지신(1996)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들이 구성하였다. 아동기 부모로부터 온정적 양육행동의 경험 여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어쩌다 그렇다(3점)', '자주 그러는 편이다(4점)', '늘 그러는 편이다(5점)'의 1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응답가능 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7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로부터 온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 3) 부모 부양의식 척도

부모 부양의식 척도는 김명자·안선영(1996)과 임춘옥·정옥분(1988), 최정혜(1994), 최정혜(1999), 한경순(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간 내적 일치도가 낮은 두 문항을 제외한 4문항을 부모 부양의식 척도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이 연로한 경우 아들이 모셔야 한다(1번 문항), 자식이라면 아들 딸 관계없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3번 문항), 아무리 양로원 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로한 부모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4번 문항)와 같은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부모 부양의식은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 사이에 분포한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72로 나타났다.

#### 4) 피부양기대 척도

피부양기대 척도는 부모 부양의식 척도와 같은 관련 연구(김명자 외 1인, 1996; 임춘옥 외 1인, 1988; 최정혜,

1999; 한경순, 1999)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간 내적 일치도가 낮은 두 문항을 제외한 4문항을 부모 부양의식 척도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내가 나이 들어 병약해지면 우리 아들이 나를 모셔야 한다(1번 문항), 내가 나이들어 병약해지면 장남이 나를 모셨으면 한다(6번 문항)와 같은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부양기대가 높은 것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부모 부양의식은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 사이에 분포한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78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 SPSS 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빈도, 백분율을 구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 일원변량 분석, Scheffe' 검증을 이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부모 부양의식(평균 13.20)은 전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원,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 (N=155)

	독립변인	부모 부양의식	피부양기대
전체		13.20(3.11)	9.90(2.61)
	t값	11.58***	
성별	남자(58)	14.78(3.24)	10.45(2.52)
	여자(97)	12.58(2.63)	9.58(2.62)
	t값	5.02***	2.03*
연령	19세(14)	13.79(2.91)	9.07(2.16)
	20세(92)	13.43(3.17)	10.00(2.88)
	21세(36)	12.69(3.24)	10.19(2.36)
	22세 이상(13)	12.30(2.36)	9.31(1.32)
	F값	1.01	.89
전공	인문계열(86)	13.00(3.03)	9.15(2.19)
	자연계열(69)	13.45(3.21)	10.84(2.80)
	t값	-.89	-4.22***
가족 구조	확대가족(67)	13.85(3.42)	10.25(3.12)
	핵가족(86)	12.74(2.79)	9.66(2.14)
	t값	2.20*	1.33

주) \*  $p < .05$ , \*\*  $p < .01$ , \*\*\*  $p < .001$

반적으로 피부양기대(평균 9.90)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대상 대학생들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식만큼 자녀로부터 부양받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부모 부양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선행연구들(서병숙, 1986; 송효석, 1989; 최정혜, 1999; 허훈, 1988), 특히 최정혜(1999)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부모 부양의식이 중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로 부모부양을 맞닥뜨리지 않은 청년층보다 현재 부모를 부양하고 있거나 맞닥뜨린 중년층이 부모부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김송애 외 1인, 1991; 최정혜, 1997; 한경순, 1999; 허훈, 1988)의 연구에서와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고학년일수록 부모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부모 부양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22세 이상인 조사 대상 대학생은 13명으로, 그 수가 적어 연령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부모 부양의식( $t=5.02$ ,  $p<.001$ )과 피부양기대( $t=2.03$ ,  $p<.05$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가족의 부계중심 가족주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이희자·김영미(1996)와 최승원·장혜정·서병숙(1997), 최정혜(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모 부양에 대해서 아들이 더 책임의식을 느끼는 반면, 노부모를 실제적으로 부양하는 며느리가 될 여자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이 낮은 것은 부모부양을 두고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을 예측하게 한다. 반면 외국 연구(Lee, Dwyer & Coward, 1993; Rossi & Rossi, 1990; Walker & Pratt, 1991)의 연구와는 다르다. 외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더 느끼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부모 부양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공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최정혜(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피부양기대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보다 자연계열 학생이 더 높았다( $t=-4.22$ ,  $p<.001$ ).

마지막으로 확대가족에서 성장한 대학생이 핵가족에서 성장한 대학생에 비해 부모 부양의식( $t=2.20$ ,  $p<.05$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대가족이 부모 부양의식을 강조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전달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확대가족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부모 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들은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남승교, 1994; 이선자, 1989)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임인혜, 1987),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연구(고경애, 1990; 김수애, 1993) 등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는 가족주의 가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경우 평균값이 중간값을 잘 대표하고 있으며 유사한 범위에 점수가 몰려있지 않아 편포가 크지 않으므로 집단 구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평균 ± 표준편차 \*0.5를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F=6.97 df=2, 152, p<.01) 및 피부양기대(F=10.76 df=2, 152, p<.001)는 가족주의 가치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높은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를 보였다. 반면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은 부모 부양의식도 낮을뿐더러 피부양기대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최승원 외 2인, 1997; 한경순, 1999)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가족주의는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주의 가치 수준이 중간인 집단은 부모 부양의식은 높으나 피부양기대는 낮았다. 이 결과는 자신은 가족주의 가치에 의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식이 있으나, 자녀에게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가족주의 가치에 기반

한 부모부양과 피부양기대는 개인적인 애정과 헌신에 의한 부양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가치가 부여하는 의무에 기반하고, 실질적인 부양 담당자인 며느리와 딸(이신숙·서병숙, 1994))을 소외시키므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는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집단으로 나누어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경우 아동기 양육경험의 평균값이 중간값을 잘 대표하고 있으며 유사한 범위에 점수가 몰려있지 않아 편포가 크지 않으므로 집단 구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평균 ± 표준편차 \*0.5를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가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보는 바와 같이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로서의 피부양기대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만이 유의한 차이(F=3.80, df=2, 152, p<.05)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애정적인 양육과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양육을 경험한 대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대학생에 비해 부모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애정에 기초한 부모-자녀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부모 부양의식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은 가지지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갖도록 하지는 않는다.

반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애정적이고 성숙을 요구하는 양육을 받지 못한 집단의 경우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타의 관계와 달리 어느 한 편의 사망없이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계의 호혜성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관계가 끝나지는 않지만 관계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Johnson, 1988).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아동기에 애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부모의 노후에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도 낮은 것은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표 2>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 (N=155)

가족주의 가치 수준	부모 부양의식	피부양기대
높은 집단(52)	13.98(3.06) a	11.10(3.04) a
중간 집단(61)	13.52(2.98) a	9.66(2.26) b
낮은 집단(42)	11.76(2.95) b	8.79(1.85) b
F값	6.97**	10.76***

주) \* p<.05, \*\* p<.01, \*\*\* p<.001

주) Scheffe' 검정에 따라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3>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 (N=155)

아동기 양육경험	부모 부양의식	피부양기대
애정 및 성숙 요구가 높은 집단(51)	14.00(2.88) a	9.71(2.87)
애정 및 성숙 요구가 중간 집단(57)	13.23(3.26) a	9.82(1.88)
애정 및 성숙 요구가 낮은 집단(47)	12.30(2.98) b	10.21(3.07)
F값	3.80*	.50

주) \* p < .05

주) Scheffe' 검증에 따라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동기의 애정적인 양육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관계는 자발적이고 부모 부양의식을 가져오는데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 부양의식은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주의 가치에 기반한 부모 부양의식처럼 장남이나 아들 위주가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에 애정적인 양육을 통해 마련되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모든(아들 딸 포함) 자녀가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부모 부양의식을 갖는 것은, 주로 장남에게 일방적인 의무로서 강조되고, 실질적인 부양 담당자인 여성(며느리와 딸)이 자신의 부모가 아닌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고 보여진다.

**연구문제 4) 아동기 양육경험 및 가족주의 가치 수준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는 어떠한가?**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기 양육경험이 높고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두 변인 모두 평균값 이상인 집단), 아동기 양육경험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아동기 양육경험은 평균값 이상이나 가족주의 가치는 평균값 이하인 집단), 아동기 양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아동기 양육경험은 평균값 이하이나 가족주의 가치는 평균값 이상인 집단), 아동기 양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도 낮은 집단(아동기 양육경험과 가족주의 가치 모두 평균값 이하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 2), 3)에서 평균값과 중간값이 유사하였고, 집단 내 점수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므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 4집단의 크기가 비슷하게 설정되어 집단간 동분산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부양의식의 경우 아

<표 4> 아동기 양육경험 및 가족주의 가치 수준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 (N=155)

아동기 양육경험과 가족주의 가치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부모 부양의식	피부양기대
아동기 양육경험 높고 가족주의 높은 집단(40)	14.15(2.96) a	11.10(3.04) a
아동기 양육경험 높고 가족주의 낮은 집단(38))	12.76(3.06) ab	9.66(2.26) ab
아동기 양육경험 낮고 가족주의 높은 집단(42)	13.56(3.05) ab	8.79(1.85) ac
아동기 양육경험 낮고 가족주의 낮은 집단(35)	12.14(3.13) b	8.91(2.11) ab
F값	3.17*(3,151)	6.42*** (3,151)

주) \* p < .05, \*\*\* p < .001

주) Scheffe' 검증에 따라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동기 양육 경험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아동기 양육경험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과 아동기 양육 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은 부모 부양의식이 동질적이었다. 이는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의 원리는 사회체제와 개인의 욕구를 집단적으로 충족시키는 사회규범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성미애 외 1인, 1997)는 주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아동기 양육경험이 애정적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족주의에 입각한 사회 규범에 의해 부모 부양의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의 경우(아동기 양육경험은 높고, 가족주의 가치 수준은 낮은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Levi-Strauss의 개인의 행위는 규범과 제재의 형태를 갖는 사회체제의 목적에 의해 조정된다는 주장(Sabatelli & Shehan, 1993: 386)에 의해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부모 부양의식은 아동기 양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 수준이 낮은 집단이 가장 낮았다. 이 집단은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도 없을뿐더러, 아동기에 부모에게 애정적이고 성숙요구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계의 호혜성에 의한 부모 부양의식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집단은 좋은 양육을 받아 본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자녀에게도 좋은 양육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와 기술, 가치, 신념 등을 습득하고, 가족의 소중함, 부모됨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부양기대는 아동기 양육경험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 집단은 부모 부양의식도 높을 뿐만 아니라 피부양기대도 높았다. 한편 아동기 양육경험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과 아동기 양

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의 피부양기대 수준은 비슷하였다. 이 두 집단은 아동기 양육경험은 다르지만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 피부양기대는 아동기 양육경험 보다는 가족주의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연구문제 3)에서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라 피부양기대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통하여 더욱더 확인할 수 있다.

피부양기대가 가장 낮은 집단은 아동기 양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이었다. 아마도 이 집단은 높은 가족주의 가치로 인해 가족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동기 양육을 받지 못해 오히려 가족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녀에 대한 피부양기대도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의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는 자녀 출산과 가족내 노인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라고 보고, 이들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른 부모부양 의식과 피부양기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부모 부양의식은 피부양기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식만큼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겠다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에 대한 세대간 연구를 통해 더 논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부모 부양의식은 연령에 따라,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과 가족 구조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의 차이는 선행연구들(이희자 외 1인, 1996, 최승원 외 2인, 1997; 최정혜, 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자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가 여자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보다 높았다. 이는 부계중심 가족주의 하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남자대학생이 더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부양해야 할 대상이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 시부모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 부양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남자대학생과 장차 노부모 부양을 담당하게 될 여자대학생과 부양의식에 대한 격차는 장래의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예측케 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통적 가족 윤리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현대사회에 맞게 새롭게 변화되

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전통적 가족 윤리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현대 사회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확대가족에서 성장한 대학생은 핵가족에서 성장한 대학생에 비해 부모 부양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확대 가족이 부모 부양의식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전달하기에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확대가족에서의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부모 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고경애, 1990; 김수애, 1993; 남승교, 1994; 이선자, 1989; 임인혜, 1987)를 고찰하여 볼 때 노인과의 동거경험 여부보다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의 질에 따라 부모 부양의식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 대상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에 따라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가 달랐다.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은 높은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를 보였다. 반면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은 부모 부양의식도 낮을 뿐더러 피부양기대도 낮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가족주의는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있는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 수준이 중간인 집단이었는데 이들의 부모 부양의식은 높았지만 피부양기대는 낮았다. 이 결과는 자신은 가족주의 가치에 의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식이 있으나, 자녀에게는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에 관한 세대간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와 같은 전통적 가족윤리와 관련한 세대간 연구를 통하여 세대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라 부모 부양의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애정적이고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양육경험을 한 대학생 집단의 경우 그렇지 못한 대학생 집단에 비해 부모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아동기에 애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부모의 노후에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도 낮은 것은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반면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라서 피부양기대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애정에 기초한 부모-자녀관계는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는데 한 요인이 되지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갖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족주의와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라 부모 부양

의식과 피부양기대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 부모 부양의식은 아동기 양육경험과 가족주의 가치가 공히 높은 집단이 가장 높고, 반대로 아동기 양육경험과 가족주의 가치가 둘 다 낮은 집단이 가족주의 가치가 가장 낮았다. 아동기 양육경험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과 아동기 양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은 부모 부양의식은 중간 정도로 비슷하였다.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가족주의 가치 모두 부모 부양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피부양기대는 부모 부양의식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아동기 양육경험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은 피부양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아동기 양육경험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과 아동기 양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의 피부양기대는 같았다. 이는 피부양기대의 경우 아동기 양육경험보다는 가족주의 가치가 더 의미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편, 아동기 양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경우 부모 부양의식은 중간정도이나 피부양기대는 낮았다. 이는 가족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가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쉽고, 그 부작용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피부양기대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집단의 경우 아동기 양육경험은 낮음에도 부양의식은 높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음에도 피부양기대는 낮은 것으로 보아 가치와 경험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내적 갈등의 해소방안과 아울러 자녀 양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기술, 정보, 가치 습득을 통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 및 후속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면서 해석되어야 한다. 먼저 표본수가 제한되어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양의식, 피부양기대 변인 측정에 대한 타당성으로 인한 제한점이 있다. 특히 의식이나 가치에 대한 측정은 응답자가 실제 갖고 있는 의식이나 가치를 다양한 방법과 질문을 통해 타당하게 측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질문지법으로 피부양기대와 부양의식을 측정하였으므로 결과해석의 제한점을 가진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전통적인 부계중심 가족주의 가치관에서의 효 규범을 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족주의 가치에 입각한 효 규범에서 볼 때, 부모 부양이란 여성에게 시부모 부양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남성에게는 친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이고, 여성에게는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 시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일 경우 남성과 여성간의 부양의식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

한 효는 현대와 같이 여성도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고 직업을 유지하는 생활 형태에서는 여성에게 불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대적 효 규범에 관한 재조명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호혜성에 입각한 효와 부모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가 논의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 하에서는 부모의 의무보다는 자녀의 의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자녀에게 의무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아동기 양육경험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의 경우 부모 부양의식이 피부양기대에 비해 높은 것의 문제이다. 반대의 경우로 아동기 양육경험과 가족주의 가치가 모두 낮은 집단의 경우 부모 부양의식은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피부양기대는 높았다. 이 경우도 호혜성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호혜성과 공정성이 가족주의가치라는 사회 규범에 의해 어느 정도는 조정될 수 있어도 그 안에서 많은 가족 내적 갈등과 부모-자녀관계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과 호혜성을 고려한 현대적 효 규범을 새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효 규범이 지향하는 부모 부양의식과 피부양기대를 고려하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족주의, 부양의식, 아동기 양육경험

## 참 고 문 헌

- 고경애(1990).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1987).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안선영(1996). 신세대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 관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25-132.
- 김송애·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김수애(1993). 부산시내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승교(1994). 노부모 부양의식과 노후생활 전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6, 101-120.
- 성미애·옥선화(1997). 효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호혜성 및 공정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245-257.
- 송효석(1989). 가족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서병숙(1994).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57-71.
- 이정덕·송현애(1995).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부양자원과 부양 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정관리학회지* 13(3), 115-123.
- 이희자·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 임인혜(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의섭(1987). 사회 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임춘옥·정옥분(1988). 분거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의식유형-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1), 163-177.
- 전길양·김태현(1993). 노모와 성인 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13(1), 17-38.
- 최승원·정혜정·서병숙(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 연구*, 15, 83-99.
- 최정혜(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4(2), 25-36.
-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55-69.
- \_\_\_\_\_(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9), 85-101.
-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13-24.
- 허훈(1988). 한국 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8, 89-106.
- Benoit, D., & Parker, K. C.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
- Johnson, C. L.(1988). Interdependence and Reciprocity and Indebtedness: An Analysis of Japanese American Kinship Re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3, 114-120.
- Lee, G. R., Dwyer, J. W., & Coward, R. T. (1993). Gender differences in parent care: Demographic factors and same-gender preferen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18(1), 9-16.
- Sabatelli, R. M., & Shehan, C. L. (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New York: Plenum Press.
- Seelbach, W. C. (1977).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Fact or artifact. *The Gerontologist*, 32(4), 498-507.
- Sroufe, L. A., Jacobvitz, D., Mangelsdorf, S., DeAngelo, E., & Ward, M. J.(1985).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between mother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a relationship system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6, 317-325.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Walker, A., & Pratt, C. (1991). Daughters help to mothers: Intergenerational aid versus caregiv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3-12.

(2004. 08. 29 접수; 2004. 10. 14 채택)